

강원 도민일보

사진작가 이지누씨 '절터 토틀아보기'

강원 절터, 풍경·역사 정감있게 그려

"도의가 경주를 떠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모아 선교(禪敎) 대립의 극단으로 치달았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선의 향기에 젖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길이 끝닿은 곳, 설악산 동쪽 기슭의 진전사 터는 그래서 더욱 값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산은 도의를 품고, 도의는 도량을 일구었기 때문이다."

글 쓰는 사진작가 이지누 씨(불교신문 논설위원)가 '이지누의 절터 토틀아보기-강원, 경상도편'(호미)을 펴내 강원의 절터를 소개했다.

'절터 그 아름다운 만행'을 타이틀로 발행된 이 책은 양양 진전사 터를 비롯해 양양 선림원, 강릉 굴산사, 원주 법천사와 거둔사, 흥법사, 인제 한계사, 흥천 물걸리 등 강원의 절터가 생생한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저자는 절터에 관한 역사와 내력, 전설을 되짚어보며 그 풍경과 운치를 정감 있게 그렸다.

강릉 굴산사가 있었던 학산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는 그의 어머니가 석천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떠 마시고 잉태했다고 한다.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은 것을 부끄럽게 여긴 어미가 아기를 학산이라는 곳에 버리고 괴로워하다가 며칠 후에 가 보니 학이 범일을 품고 있어 상서로운 일로 여기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키웠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원주 흥법사 터의 삼층석탑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소개했다.

"흥법사 터의 삼층석탑은 남루하다. 하지만 남루함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쌓아놓아서 더욱 정감이 간다. 더러 새 돌을 끼우긴 했지만 그도 세월을 머금어 거슬리지 않는다."

양양 선림원 터는 화엄과 선종이 만났던 곳으로 유명하다. 804년 교와 선을 오갔던 순응 화상이 종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한국 선종의 조종(祖宗)이라 불리는 도의선사에게서 선법을 이어받은 염거화상이나 보조선사 체징, 그리고 873년에 절집을 다시 일으켜 세운 흥각선사가 머물렀던 곳.

백담사의 전신으로 신정여왕 1년인 647년 자장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인제 한계사는 고려의 문인인 백운거사 이규보가 한계사의 주지를 만나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지은 시가 전해진다.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겠네/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푸른 것을"

시 말미에 쓴 구절은 한계사의 풍경과 절의 운치를 시간을 초월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향일 운동으로 유명한 흥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창마을에 있는 절터는 이름이 분명치 않다.

그래서 물걸리 절터라고 부르지만 이곳이 흥양사였다는 주장도 있다.

2003년 발굴을 마친 국립춘천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명문이 새겨진 기와를 찾지 못해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절터의 신비감이 더하다. 다만 절터에 남아있는 석조유물로 미루어 그 규모가 흥천 일대에서 가장 컸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저자 이지누씨는 2001년 계간 '디새집'을 창간했고 현재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문집 '우연히 만나 새로 사권 풍경'을 펴냈고 지난해에는 일제 강점기의 기행문들을 모

아 엮는 '잃어버린 풍경1-서울에서 한라까지'와 '잃어버린 풍경2-백두산을 찾아서'를 발간했다.

이수영 sooyoung@kado.net

기사입력일 : 2006-03-12 19:33